



Received: 2025/02/04  
Revised: 2025/02/11  
Accepted: 2025/03/11  
Published: 2025/03/31

**\*Corresponding Author:**

**Kitae Kim**

Joint Analysis and Experiment Center, ROK Joint Chiefs of Staff  
22 Itaewon-ro, Yungsan-gu, Seoul 04383, Republic of Korea  
Tel: +82-2-748-2921  
E-mail: navystar52@naver.com

# 한국군 항공모함 확보의 군사적·경제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ilitary and Economic Utility of ROK Military's Aircraft Carrier Acquisition

김기태\*

해군 중령/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 제2전력분석과 해상/공중전력운영분석담당

Kitae Kim\*

CDR, ROK Navy/Maritime/airborne forces operations researcher,  
2nd Military Forces Analysis Division, Joint Analysis and Experiment Center,  
ROK Joint Chiefs of Staff

**Abstract**

한국은 국가의 안전과 번영에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반도 국가로 자원을 수입해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제방식으로 국가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국가 경제의 의존도를 고려하였을 때 해양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며, 해양의 적극적인 활용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항공모함의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에 대비해 열세인 우리나라의 해군력을 증강함으로써 다양한 위협에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임무 수행능력과 전시 효과가 우수한 항공모함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항공모함의 총사업비용과 비교하면 더 많은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해상교통로 보호를 통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번영케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Instability and uncertainty are increasing in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ROK. ROK is a peninsula country, and it is pursuing the prosperity by importing resources, processing and exporting them. Considering ROK's security environment and dependence on the national economy, the importance of the maritime will gradually increase, and more active use of the maritime will be required. In this study, confirmed the military and economic utility of aircraft carrier against various security threats. By strengthening ROK's naval power, which is inferior to neighboring countri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aircraft carrier with excellent mission performance and present effectiveness are militarily utility. In addition, compared to the total acquisition cost of the aircraft carrier, it was confirmed that it is economically utility, such as creating more profits and employments, as well as prospering the national economy and people's lives through the protection of sea line of communication.

**Keywords**

항공모함(Aircraft Carrier),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해군력(Naval Power), 효용성(Utility)

### 1. 서론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에는 미사일 발사, 공군기 위협 비행, 동·서해 포격 등 실질적인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변국과 민족, 영토, 자원, 역사 등에 관한 갈등 요인이 있으며,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이 국가의 안전과 번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이고,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원유, 원자재 등을 수입하며, 이를 가공한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82%,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16].

그러므로 바다는 자원의 보고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속성으로 인해 국가 간의 협력과 분쟁의 무대, 무역체계의 핵심이 되는 등 국제 관계에 있어 필수적인 공간이다. 영국, 미국 등 해양강국이 그러하였듯이 역사적으로 볼 때 바다를 지배한 국가가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고, 바다를 통해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국가 경제의 의존도를 고려하였을 때 해양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며, 해양의 적극적인 활용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해양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경제, 환경, 자원, 국민의 활동 등 국가 기반을 이루는 모든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라 할 수 있다. 해양안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국익과 직결된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먼 바다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과 같은 해군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항공모함은 비행기와 헬기를 탑재, 발진, 착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함정으로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은 해상 기동부대의 중심전력이다[15].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북한, 주변국, 초국가·비군사 등 해양에서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경제적으로 원유나 원자재의 수입, 가공 제품의 수출 등 해양을 통한 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항공모함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항공모함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항공모함 확보의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면서도 항공모함의 군사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는 항공모함이 해군력 건설에서 중요한 것인지, 항공모함의 비용으로 다른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항공모함으로 군사적 분쟁을 억제하기 어렵지 않은지, 국가 역량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이 과도한 전력은 아닌지 등 우리나라 항공모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군의 항공모함 확보에 따른 군사적·경제적 효용성을 정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확보 추진 현황 및 임무와 역할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해군력의 수준을 평가한 후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항공모함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한다. 이후 항공모함 건조에 따른 산업파급 효과, 해상교통로 보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방산 수출 효과 등을 통해 항공모함의 경제적 효용성을 확인한다.

## 2. 한국형 항공모함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확보에 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려는 국가와 군의 의지,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해군이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항공모함[15]은 길이 265 m, 폭 43 m, 배수량 약 30,000톤

급의 함정이며, 수직이착륙기와 구조헬기, 해상작전 헬기 등 다양한 항공기를 동시에 탑재한다.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지휘 통제체계와 자체방호체계를 탑재하며, 국내 조선소의 설계와 건조능력을 활용한다. 항공모함 건조는 약 12~13년간의 설계와 함 건조 단계를 거치게 되며, 약 5조여 원(함정 약 2조여 원, 탑재 항공기 약 3조여 원)이 투입된다[2].

더욱이 우리나라의 항공모함은 3,000톤급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과 함께 Fig. 1과 같이 항모전투단(carrier battle group)을 구성하며, 해군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다.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로 평시에는 강력한 군사력 현시를 통해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항공기를 운용한 합동작전 수행으로 ‘최단 시간 내 최소 피해’로 전쟁 승리에 이바지할 것이다[15].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Fig. 1. Conceptual image of ROK's carrier battle group[15]

## 3. 항공모함의 군사적 효용성

본 장에서 살펴볼 항공모함의 군사적 효용성은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해군력의 수준을 북한 및 주변국과 비교 평가하고, 미시적 관점에서 항공모함의 임무 수행능력과 현시 효과 측정을 통해 확인한다.

첫째,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주변국과의 해군력을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비록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북한보다 양적으로 열세지만, 북한의 해군력은 구형이면서 소형의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질적으로 우수한 편이다[1]. 반면에,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2020년 기준 중국의 17%, 일본의 39% 수준이며[15],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형 함정 위주로 편성된 주변국 해군에 비하면 질적·양적으로 열

세이다. 게다가 일본은 2020년대 초반까지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조 중이고, 중국은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 2척과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이처럼 주변국의 함정 건조 추세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해군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Table 1.** Naval power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1]

Country	Surface ship	Submarine	Aircraft
South Korea	130*	20*	60*
North Korea	740*	70*	10*
Japan	111	21	122
China	609 (including 2 aircraft carriers)	59	421 (including 318 fighter jets)

\*Approximate amount

둘째, 합동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항공모함의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10]. 여기서 합동성(jointness)이란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의 모든 전력을 기능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또는 특성이다[12]. 전통적으로 전쟁은 각 군이 수행하는 군사작전을 전제로 진행되었지만, 합동작전이 전쟁의 결정적 승패를 좌우하였다는 교훈은 전쟁사를 통해 꾸준히 제시되고 있으므로 합동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8]. Table 2의 제원과 성능을 보유한 주요 자산 5종(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3,000톤급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F-35A, 탄도미사일 현무-4)을 대상으로 4개 분야의 85개 합동작전 임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합동성을 고려한 임무 수행능력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다른 자산에 비해 1.05~2.50배 우수하였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의 임무 수행능력이 높게 산출된 것은 해군력의 특성[13]인 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현시성, 투사성이 충분히 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assets[10]

Category	Image	Specifications
Aircraft car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ight: 30,000 tons ± 10 %</li> <li>Speed: max. 27 kts; cruise 17 kts</li> <li>VTOLs, helicopters, etc.</li> </ul>
Aegis destroy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ight: 7,600tons</li> <li>Speed: max. 30 kts; cruise 15 kts</li> <li>Aegis combat system, missiles, etc.</li> </ul>
Stealth fighter F-35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eed: max. Mach 1.6</li> <li>Operational radius: 865 km</li> <li>Weapons : AAM, JDAM (1,000lbs)</li> </ul>
Stealth fighter F-35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eed: max. Mach 1.6</li> <li>Operational radius: 1,260 km</li> <li>Weapons : AAM, JDAM (2,000lbs)</li> </ul>
KSS-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eight: 3,334-3,670 tons</li> <li>Speed: max. 20 kts</li> <li>VLS, torpedoes, missiles, etc.</li> </ul>
Ballistic missile Hyunmoo-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eed: max. mach 10</li> <li>Range: max. 800 km</li> <li>Warhead weight: 2 tons</li> </ul>

**Table 3.** Mission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assets[10]

Category	Score
Aircraft carrier (F-35B)	0.250
Aegis destroyer	0.239
KSS-III	0.190
Stealth fighter F-35A	0.221
Ballistic missile Hyunmoo-4	0.100

셋째,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전략급 군 자산 3종(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한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F-35A, 탄도미사일 현무-4)의 현시 효과를 측정

하였다[9]. 전략급 군 자산은 군사기지, 방위산업 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이다. 현시는 국가의 이익 달성을 위해 군사력을 나타내 보여 국가 이미지 고양, 국위 선양, 국력 과시 등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대외정책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의 한 형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전략급 군 자산의 현시 사례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Presence cases of strategic military assets[9]

Category	Presence cases
Aircraft carr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SS Ronald Reagan (aircraft carrier) conducted a combined training (South Korea, US, and Japan) in the East Sea → Warning message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ons</li> <li>USS Abraham Lincoln (aircraft carrier) passe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n the Middle East → Sanctions on Iran (threatening blockade the Strait of Hormuz)</li> </ul>
Stealth figh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outh Korea's 28 F-35A fighters release a 'Elephant Walk' training scenes → Warning message against North Korea's ICBM provocations</li> <li>US F-22 fighters, spread to Lithuania in Europe → Showing US defense commitment to Russian threats in Baltic States</li> </ul>
Ballistic miss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aunch training of South Korea's ballistic missile Hyunmoo → Warning message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ons (nuclear test, ballistic missile)</li> <li>China's IRBM forward deployment in eastern and western regions → Aiming the US force stationed in India and Japan (on border dispute)</li> </ul>

여기서 현시 효과는 군사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고[9], 우리나라의 명확한 안보위협인 직접적 위협(북한의 군사적 위협), 잠재적 위협(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주변국의 위협), 비군사적 위협(테러, 사이버 공격, 폭동 등)을 목표로 하였다. 시기는 우리나라 항공모함이 확보되는 2033년 이후의 미래 상황을 상정하였다. 또한, Table 5와 같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스텔스 전투기 F-35B 16대를 탑재한 항공모함 1척을 기준으로 자산별 기회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Table 5.** Opportunity cost of assets[3,15,17]

Category	Unit price (KRW)	Quantity
Aircraft carrier	Ship	2 trillion*
	Stealth fighter F-35B	114.5 billion*
	Stealth fighter F-35A	88 billion*
	Ballistic missile Hyunmoo-4	4 billion*

\*Approximate amount

이처럼 전략급 군 자산의 현시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스텔스 전투기 F-35B 16대를 탑재한 항공모함의 현시 효과는 0.425로 모든 안보위협에서 다른 자산 대비 가장 높았고, 스텔스 전투기 F-35A 대비 1.34배, 탄도미사일 현무-4 대비 1.64배 우수하였다. 이는 항공모함이 우리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여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임을 의미한다.

**Table 6.** Presence effectiveness of strategic military assets[9]

Category	Direct threat	Potential threat	Non-military threat	Total
Aircraft carrier (F-35B)	0.241	0.121	0.063	0.425
Stealth fighter F-35A	0.216	0.067	0.034	0.317
Ballistic missile Hyunmoo-4	0.176	0.054	0.028	0.258

이상과 같이 항공모함의 군사적 효용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현재 주변국 대비 열세이고,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군력 증강 추세가 고조되는 안보환경에서 다양한 위협에 유용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공모함은 필수적인 전력이다. 덧붙여, 항공모함의 임무 수행능력과 현시 효과도 스텔스 전투기 F-35A와 탄도미사일 현무-4 대비 우수하였기에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 4. 항공모함의 경제적 효용성

본 장에서 살펴볼 항공모함의 경제적 효용성은 항공모함 건조에 따른 경제적 산업파급과 방산 수출 효과를 산출하고, 항공모함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측정을 통해 확인한다.

첫째, 항공모함 건조에 따른 경제적 산업파급 효과 중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산업연관표와 고용표를 기준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여 산출하였으며, Table 7과 같다[6]. 항공모함 건조 비용 2조 6,400억 원을 적용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 약 2조 69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7,709억 원, 취업 유발 효과 9,331명, 고용 유발 효과 7,097명으로 산출되었다.

**Table 7.** The influence of aircraft carrier construction on the national industry[6]

Category	Amount
Production inducement	2.697 trillion KRW*
Added value	770.9 billion KRW*
Employment inducement (direct and indirect)	9,331 employees
Employment inducement (direct)	7,097 employees

\*Approximate amount

또한, 국내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핵심기술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활용하여 향후 무기체계 개발에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Table 8과 같다[6]. 항공모함의 건조에 따른 국내 기술발전은 총 6,60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Table 8.** The influence of aircraft carrier construction on domestic technological development[6]

Category	Amount (billion KRW)
Design	93.81
Build	48.11
Equipment	518.38
Total	660.30

이는 항공모함 건조에 투입되는 총사업비용보다 국가 산업과 국내 기술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이며, 항공모함 건조에 따른 산업파급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둘째, 항공모함 건조에 따른 방산 수출 효과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방산 수출 실적은 과거 5년(2012~2016년)에 견주어 177 % 증가했다. 이처럼 세계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러시아·프랑스·독일·중국 등 세계 방산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다[11]. 2022년에는 아랍에미리트와 35억 달러에 달하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II 수출계약,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K-2 전차 980여 대 이상, K-9 자주포 648대 이상의 수출계약을 맺었으며, 과거 필리핀과 이라크에 판매했던 FA-50 경공격기도 이번에는 폴란드 시장을 뚫으면서 48대 판매를 성사시켰다[4].

군함의 경우, 잠수함을 비롯하여 초계함이나 호위함과 같은 전투함정, 상륙함정, 특수 및 지원함정을 영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수출하였다. 여기에 항공모함까지 건조한다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조선기술을 기반으로 군함의 수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군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기본형을 기반으로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KF-21N의 국내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5,7]. 국내에서 개발한 FA-50 경공격기의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등에 수출한 사례를 볼 때, 탑재 항공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다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공모함 확보를 통한 국제 해상교통로와 국내 주요 항만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상교통로와 항만으로 운송되는 수출·입 화물의 물동량 변화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14]. 국제 해상교통로는 해운회사가 실제로 통항하는 12개 항로를 적용하였고, 국내 주요 항만은 2018년 기준 수출·입 물동량의 약 84 %를 차지하는 부산항, 울산항, 광양·여수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항공모함을 확보한 경우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에 따른 경제 영향성은 Table 9과 같으며, 1일당 6,024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덧붙여, 국내 주요 항만의 해상교통로 보호에 따른 경제 영향성은

**Table 9.** Economic influences of international sea line of communication[14] (Unit: 100 million KRW per day)

Export and import area	Crude oil, coal, and gas	Chemistry products	Steel and metal products	Transportation equipment	Metals and non-metal minerals	Total
Middle East and Africa	2,532	121	57	94	39.8	2,843.8
Far East Asia	-	688	526	265	96	1,575
Southeast and Southwest Asia	482	231	156	59	45	973
Europe	245	163	73	142	9.6	632.6
Total	3,259	1,203	812	560	190.4	6,024.4

1일당 1.22조 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통항 유지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항공모함 확보를 통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항공모함의 경제적 효용성을 살펴본 결과 항공모함을 건조하면 총사업비용인 2조 6,400억 원보다 많은 총 3조 5,009억 원, 취업 및 고용 16,428명의 산업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항공모함을 확보하여 해상교통로의 안전한 통항을 유지함으로써 1일당 1조 8,224억 원의 경제 영향성을 보호할 수 있다. 나아가, 함정, 항공기, 조선 및 국방 관련 기술 등 K-방산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청신호를 줄 것이므로 항공모함의 경제적 효용성은 충분하다.

###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확보함에 따른 군사적·경제적 효용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변국에 대비해 열세인 우리나라의 해군력을 증강함으로써 다양한 위협에 유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임무 수행 능력과 현시 효과가 우수한 항공모함이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항공모함의 총사업비용과 비교하면 더 많은 이익과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해상교통로 보호를 통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번영케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항공모함에 관한 선행 연구와 다르게 항공모함의 군사적·경제적 가치를 객관적 자료와 과학적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총 6가지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연구한 점은 큰 의의가 있다. 이는 항공모함 확보의 필요

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항공모함 확보에 투입되는 비용은 적절한지, 항공모함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는지 등 여기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미래의 다양한 위협은 바다로부터 올 것이 분명하고, 바다는 우리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해상 울타리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바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모함은 북한의 도발 억제에는 물론,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바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전력이다. 주변국의 전략적 불확실성과 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보호하는 것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매우 유용한 전력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p. 287-290, 2020.  
 [2] 장용석, "'여야 충돌' 경항모 예산 어떨길래... 항모 2조·전투기 3조·매년 500억," 뉴스1, 2021년 12월 2일,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4510951>  
 [3] 강현, "2020년 주목받은 국산 전략무기," 매일경제, 2020년 12월 29일, <https://www.mk.co.kr/news/it/9671948>  
 [4] 이주섭, 원호섭, 김성훈, "7개월 만에 5년 치 수출 달성한 K-방산... 세계 톱5가 보인다," 매일경제, 2022년 7월 27일, <https://www.mk.co.kr/news/economy/10402054>  
 [5] 정현용, "우리 국력에 3만급 항공모함은 적정인가," 서울신문, 2022년 10월 9일, <https://www.seoul.co.kr/news/plan/military-story/2022/10/09/20221009500027>  
 [6] 최관선, 박종훈, 전건욱, 양재훈, 경항모 건조가 우리나라 산업효과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안보경영연구원, pp. 127-130, 2022.

- [7] 김지현, “항모 탑재 국산 함재기 나오나… 보라매 파생 KF-21N 모형 공개,” 연합뉴스, 2022년 9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122400504>
- [8] 윤석준, “한국군 합동성 및 합동작전 개념과 발전방향,” 전투발전연구, 제18호, pp. 1-34, 2011.
- [9] 이진우, 김기태, 박성제, “AHP를 이용한 군 전략급 자산의 군사력 현시 효과 분석,”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22.
- [13] 정병기, 김기태, 박성제, “합동성을 고려한 한국형 항공모함의 임무 수행능력 분석,” Journal of the KNST, 제5권, 제2호, pp. 155-160, 2022.
- [14] 김영배, 무기 수출 연 100억 달러 시대… 중국·독일 넘어 빅4 가능성도, 한겨레, 2022년 10월 3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1077.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1077.html)
- [15]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p. 358, 2014.
- [16] 해군본부, 해군 기본교리, p. 24, 2017.
- [17] 해군본부, 해상교통로 통항 제한 시 경제 영향성 분석: 수출·입 물동량 변화에 따른 경제 영향성 분석, pp. 68~72, 2021.
- [18] 해군본부, Q&A로 알아보는 경항공모함, pp. 13-57, 2021.
- [19] 해양수산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pp. 1-2, 2018.
- [2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35 Joint Strike Fighter(JSF) Program, pp. 17-18, 2022.